

네팔노동자 성폭행

공장장 긴급 구속

95. 1. 11

경기 광주경찰서는 10일 네팔인 여자 노동자를 성폭행한 한국인 가구 공장장 기현석(28·광주군 오폐면 신현1리)씨를 붙잡아 강간치상 혐의로 긴급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기씨는 지난 8일 새벽 1시30분께 광주군 오폐면 신현1리 241 표모방 가구 기숙사에 서 잠자고 있던 네팔인 여자 노동자 고마(22)씨 방에 들어가 고마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끌고가 강제로 성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다.

광주 / 홍용덕 기자